"숲에서 쉬어가다"…구례군, 지리산 역사여행 성료

지리산역사문화관 전국단위 교원연수 54명 만족도↑

역사·문화·생태·향토문학 전문 강사 초빙 알찬 구성

구례군은 작년에 이어 시행한 지리산역사문화관 전국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1기 8월 11일 부터 8월 12일 , 2기 8월 18일 부터 8월 19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연수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2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숲에서 쉬어가다, 지리산역사여행"이란 제목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 5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지리산의 역사·문화·생태·향토문학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리산의 신화 이론 강의와 생생한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해 지리산 자락 아래서 치열하게 살았던 지식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깊게 다가가 보고 이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응용하고 도움이 되도록 연수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수 세부 내용은 ▲북극성 태을신이 살고 있는 지리산의 전설과 신앙 ▲매천 황현의 학문과 삶 ▲구례 지식인들의 민족정신교육 ▲지리산의 자연생태와 정원문화이다.

이 중 매천 황현의 학문과 삶, 구례 지식인들의 민족정신교육은 지리산역사문화관 제2관 및 제3관에 조성된 지리산의 역사와 매천 황현선생 전시관을 관람 후, 광의면 호양학교 및 매천사에 방문하여 이론과 현장 실습이 병행되는 생생한 연수가 되었다.

또한, tvN 윤스테이 촬영지였던 쌍산재와 공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을 방문하였고,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의 다과상 만들기 목공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교원들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며 "지리산의 역사와 그 아래 살았던 지식인들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구례의 자긍심을 보여준 알찬 연수였다"라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은 2021년 10월 12일에 재개관하여 ▲제1관 강따라 구례 옛사진전과 옛 농경도구 전시 ▲제2관 산따라 지리산 및 구례 , 구례의 역사, 동학혁명, 정유재란과 석주관 전투 등 전시 ▲제3관 길따라 매천황현실, 어린이 체험관전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추억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금년 들어 1만 3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옥과도서관 하반기 문화 강좌 및 동아리 운영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이 오는 9월 15일부터 하반기 문화 강좌 및 동아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문화 강좌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나는 독서 놀이, 리딩 보드 게임, 독서 동아리를 운영한다. 또한 독서 동아리 참여자에게는 활동 도서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 읽는 즐거움과 습관을 갖게 하고 독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서예, 라탄 공예, 토탈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 강좌 수강료는 무료다. 옥과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옥과공공도서관(☎061-360-8478)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농산물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 교육' 수강생 모집

담양군이 9월 13일까지 관내의 소규모가공사업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장 위생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총 7회로 2회의 식품위생법과 가공사업장 위생관리 요령에 대한 이론교육과 5회의 위생관리 현장 지도를 통해 사업장에 맞는 효율적인 위생관리요령을 교육·컨설팅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교육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농촌자원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 운영자들은 사업장의 거의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업체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읍 주민자치회, 장성댐 바람개비 언덕길 조성 완료

해바라기 모형 조형물 500개 설치

장성댐에 독특한 '바람개비 언덕'이 조성됐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읍 주민자치회(회장 기세연)가 올해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택한 바람개비 언덕길 조성사업이 최근 완성됐다.

이 사업은 장성읍 주민자치회가 2022년 주민총회 의제로 선택해 추진해 왔다.

500개의 해바라기 조형물이 장성댐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 양쪽과 댐 위에 설치되어, 바람이 불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새롭게 조성된 바람개비 언덕에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들도 호응을 보내고 있다. 수변길에서 만난 김모 씨(광산구)는 "계단을 따라 가지런히 늘어선 바람개비들이 바람을 맞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청량감을 더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읍 주민자치회는 오는 9월 26일 2023년도 사업을 위한 주민총회를 군민회관에서 열 예정이다.

장성=김수권 기자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2개 과정 취·창업교실 개강

실버인지놀이지도사·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지원

나주시는 경력단절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취·창업 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아동요리지도사' 2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하며 과정별로 20명씩 참여한다.

실버인지놀이지도사는 문화센터교육장에서 노인 건강특성 이해와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운동 등 15회차, 아동요리지도사는 나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수제버거, 케이크, 과자류 조리·창작기법을 중심으로 11회차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가족 동반 이주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새로운 일상과 도전을 위한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지원

9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공동주택 당 최대 5기 지원

화순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를 지원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이하 종량기)를 도입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세대별 배출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배출량이 자동 측정돼 세대별로 수수료(관리비에 포함)가 부과된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적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해도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배출자 스스로 감량 의지를 높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수수료 형평성 문제도 해소된다.

신청 대상은 종량기(RFID) 운영관리가 가능한 9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1곳당 최대 5대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다.

화순=박순철 기자